북핵 6자회담 이르면 주내 재개

27일 냉각탑 폭파 전에 열릴 가능성

한미중 수석대표 베이징서 연쇄접촉

빠르면 이번 주중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재개되며, 회담 도중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벤트가 연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지체된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고서 접수와 6자회담 개최의 시차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6자회담을 먼저 열고 신고서를 제출받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 경우 6자회담이 열린 뒤 냉각탑 폭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가급적 6자회담 재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으며 중국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6자회담 참가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나 러시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만 6자회담 재개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는 데에는 역시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면서 "의장국 중국이 여러 변수를 감안해 회담 재개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6자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개최될 수 있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진행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행사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생중계를 위해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인 CNN을 비롯해 한국의 MBC와 일본(교도통신), 중국(신화통신), 러시아(이타르 타스) 등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냉각탑 폭파 일정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CNN은 이번 행사를 위해 이미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에서 파견한 팀이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CNN은 국내 메인뉴스 시간에 영변 냉각탑 폭파 생중계를 내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변 현지의 전력사정과 방송 중계 여건에 따라 시간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생중계에 드는 비용과 초청료 등 상당한 금전적 비용을 5개국 언론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MBC "北 냉각탑 폭파 취재진 3명 파견"

MBC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취재할 취재진 3명을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성수 MBC 보도국장은 "지난 20일 외교부 채널을 통해 북한이 MBC에 냉각탑 폭파 취재 요청을 해왔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며 "북한 측이 취재진 3명의 명단을 요청해 취재기자 1명, 영상 기자 2명의 명단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7일로 예정된 냉각탑 폭파 장면은 CNN이 전 세계로 중계할 예정이며 MBC는 이를 직접 중계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취재진의 명단만 북측에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MBC의 취재가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취재와 관련한 '참가비'에 대해서도 아직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MBC와 함께 취재할 해외 언론의 명단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으며 그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 5개국 언론사를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2일 필리핀 중부 수바얀섬 근해상에서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즈'호의 일부가 떠있는 것을 주민들이 해변에서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比 침몰 여객선 생존자 38명 발견

800여명 생사확인 안돼…한국인 탑승객 없어

태풍 '펑선'(風神)으로 침몰한 필리핀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즈'호에 승선했던 800여명의 승객, 승무원 가운데 23일 오후 현재까지 38명의 생존자가 발견됐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 라디오방송 DZBB는 28명의 생존자가 추가 발견됨으로써 지금까지 모두 32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지금까지 해변에서 발견 또는 구조된 생존자가 33명이라고 보도, 생존자 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디기는 하지만 생존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다수인 800여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관적 상황 속에서도 구조팀이 높은 파도를 헤치고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구조팀은 특히 침몰한 여객선 안에 생존자가 갇혀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아래 생존자 수색을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8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고 여객선이 침몰할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사고 여객선 침몰 희생자로 보이는 시신들이 바닷물에 떼밀려 발견됨에 따라 구조팀은 생존자 수색과 더불어 사고해역 인근 도서 지방 해안 등지에서 시신 수습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여객선은 지난 21일 마닐라를 출발, 중부 관광휴양지인 세부로 가던 중 시부얀섬 인근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킨 뒤 최대 풍속 초속 44m에 이르는 강풍 속에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즈'호의 소유업체는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과 승무원 합쳐 모두 862명이 승선해 있었다고 승선 인원을 정정 발표했다. 여객선 소유업체는 당초 승객과 승무원 합쳐 총 승선 인원이 747명이었다고 했다가 이를 100명 넘게 정정한 것이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필리핀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것과 관련,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필리핀 측에서는 한국인 탑승객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등 '3통' 합의 이행 관련

北측 대화 거부로 실무협의 못해

통일부 대변인 밝혀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에서의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를 가질 필요성을 북에 강조해왔지만 북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3통'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측이 3월말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북측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통신자재를 배송하는 등의 계기를 활용, 북측에 3통 관련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3통' 이행과 관련한 대북접촉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전날 담화를 통해 문제제기한 군사당국간 통신장애 문제에 언급,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자재·장비를 북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22일 남북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의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과 북은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열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서의 3통 문제 해결에 합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서까지 채택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합의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터프 가이' 짐 웹 상원의원

오바마 '러닝 메이트' 급부상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한 짐 웹(62)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웹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웹 의원은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텃밭인 버지니아주에서 인기가 높았던 조지 알렌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정치 신인이다. 그는 상원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두 달 여만인 2007년 1월말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불과 1년여 만에 유력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당시 그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웹 의원의 강점은 국가안보와 국방.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해군장관을 지낸 웹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 이라크전 반대 선봉에 서왔다. 이 때문에 웹 의원은 군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바마의 이미지를 보완하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전쟁 영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의 군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전에 참전한다. 그는 수류탄이 터질 때 몸을 던져 동료 병사를 보호하는 등 베트남전에서의 무공을 인정받아 해군 수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美 '출국 외국인 지문 관리' 철회 촉구 세계 34개 항공사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세계 34개국 항공사 대표들은 미국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출국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정보를 수집·관리토록 한 조치에 반발해 이 계획의 철회를 미 정부에 촉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죠반니 비시냐니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공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출입국 관리 부담을 항공사에 맡기는 것은 보증되지도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IATA는 출국자 지문관리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항공사들이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미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35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23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